

[심의 개요]

- 일시/장소 : 2017. 08. 29.(화) 13:00~15:30, 대학로 아르코 미술관 세미나실(3층)
- 심의사항 : 2017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 28건 심의
- 심의위원 : 김윤섭(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 김경태(강동아트센터 공연기획팀장), 박성완(예원 노무법인 노무사)

[중점 심의방향]

- 연수단원 지원사업의 연속석상에서 실질적으로 연수단원이 정규직으로 채용 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였으며, 지원신청서 및 근로계약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연수단원 참여이력 확인 및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함.
- 더불어, 예술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관행적 문제점과 불가피성, 지원신청단체의 정규직 채용 여부를 집중 논의하였으며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정규직 정의를 반영하여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근로기간을 포함하고 근로기간에 지원인력의 최초 근무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확대함.
- 지원신청서를 토대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일자 등을 검토하여 연수단원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 결정하였으며,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실 고용기간이 2년 이상 고용관계가 있는 단체는 모두 조건부로 결정함.
- 조건부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기간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단체이며 별도의 재확인 절차를 통한 조건부로 승인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살려 최대한 지원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을 올바르게 유도하고자 하였음.

[전반적인 평가 또는 사업개선방향 의견]

- 본 사업은 감사원의 연수단원 취업률 제고 노력 권고와 여러 자문결과 등을 반영하여 올해 첫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총 28개 예술단체가 지원하여 조건부 포함 24개 단체를 우선 선정하였다.
- 신청단체의 근로계약서, 4대 보험가입 현황 등 지원서를 검토하여 14개 단체는 2015년, 2016년 연수단원이 2017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조건부 10개 단체는 예술계가 매년 연간 근로계약을 하거나 근로계약 작성 없이 고용하는 관행이 존재하기에 본 사업의 취지와 예술계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수단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해당인력의

최초 근무일을 기준으로 2년을 넘었을 경우는 정규직 볼 수 있어 추후 서류 확인을 전제로 조건부 결정을 하였다.

○ 다만, 심의 결정에 있어서는 기준이 필요하고 심의결과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 연수단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으나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되어야 할 측면은 있으나 공공기금이 투입되는 것이기에 향후 해당인력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 대상이 2015년, 2016년 2개년간 600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총 3회에 걸쳐 지원 신청공고를 하였음에도 총 28개 단체만 신청하였다.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더 많은 단체에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지원신청이 저조한 것은 반대로 문화예술분야의 청년인력이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렵거나 일자리가 부족한 반증 일 수도 볼 수 있어 연수단원 참여 이후 예술인력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그간, 문화예술계는 노동법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으나 현장예술인력 고용을 지원하는 연수단원지원사업, 시각과 공연분야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 이외, 새롭게 시행하는 본 사업을 통해 예술단체의 고용 전환을 유도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술분야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연수단원 사업과 본 사업과의 연관성을 향후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정교한 계획이 수반된다면 예술계, 예술인을 위한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7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